

## 돈콜레라 영원한가?

세상에서 살아숨쉬는 동·식물과 생물, 기타 모든 것들은 깨끗한 환경속에서 질병없이 일생을 마치기를 원한다.

1920년대 한번 휩쓸면 반수이상이 사망한다는 무시무시한 병이 바로 호열자, 콜레라다.

지금이야 예방으로 그리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가장 무서웠던 병이다.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 출입을 금지시키고 동네어귀에서 질병의 유무를 확인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물며 돈콜레라도 대상이 돼지일뿐 그 무서운 것은 똑같다.

예방주사를 맞지않은 돼지는 거의 다 폐사한다는(약간 일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돈콜레라!

그 병이 매년 거르지 않다시피 발생되고 보니 면역이 되어야할 대상인 돼지는 안되고 사람만 면역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의 발생상황을 보면,

돈콜레라 연도별 발생 상황

연	도	발생두수	연	도	발생두수
1980년		1,086	1984년		1,863
1981년		357	1985년		1,438
1982년		9,081	86·4		894
1983년		3,436			

이렇게 많은 돼지가 인간이 필요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으로 17년간 돈콜레라 박멸계획을 세워 1978년 1월 31마침내 돈콜레라 없는 지역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미국의 돈콜레라 발생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833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후 그 질병은 확산되어 1886년에는 전체두수의 13%가 사망하였다 한다.

그후 1903년 질병의 병원체가 바이러스로 밝혀지고 1906년 병돈의 독혈과 면역혈청을 동시에 접종하는 공동예방접종법으로 효과를 보았다.

1951년에 생독백신이 개발되자 이의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사용해 왔다.

1950년 미국의 수의사회 집행위원회와 미국 가축위생위원회의 찬동을 얻어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전국적인 대표위원회를 구성·계획하고 이듬해 1951년 각 분야 주요 인사로 구성된 "전국 돼지 콜레라 박멸위원회"를 설립 박멸계획, 기술적·과학적 문제해결에 주력했다. 1958년 미국 가축위생위원회는 미국 농무성에 돼지 콜레라 박멸계획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하는 질병 전담국의 설립을 권장하여 1961년 전 미국 돼지콜레라 박멸에 관한 특별법이 대통령 케네디의 서명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농무장관이 필요시 돼지콜레라 강독의 주간(州間)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자문위원회설치를 하였다.

그 박멸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박멸특별법제정에 따라 미농무성, 가축위생위원회 축산보호기구는 최초로 모임을 갖고 국가계획의 실행단계접근, 백신접종, 이동규제, 폐사돈에 대한 보

상금지불, 주요 정보수집 및 활용 등 서로 협조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미농무성과 가축위생위원회는 박멸실행 단계를 설정하고 준비단계, 질병감소단계, 발병 근절단계, 재발근절단계, 재발방지단계의 4 단계로 구분해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돼지 콜레라 부재지역(비발생지역)임을 선포하게 되었다.

제 1 단계 : 준비단계는 질병발생보고, 잔반열처리, 돼지이동규제, 검문·검색, 사체(死體) 소각 및 생물학적 제제(백신) 사용단을 위한

- ① 주와 군에 돼지 콜레라 박멸위원회 설치
- ② 신속한 질병보고체제 확립
- ③ 보고된 유사질병의 확인

제 2 단계 : 질병감소 단계는

- ① 확진이 내려질때까지 의심돈의 검역 실시 및 감염돈의 검역
- ② 검역돈군의 이동금지
- ③ 시장구입돈의 검색
- ④ 매매자에 의한 돼지출처 및 관련사항 기록보전

제 3 단계 : 발생근절단계

- ① 보상금 지불에 의한 감염돈 제거
- ② 감염 및 접촉돈의 살처분, 감염지역내의 검색, 시장구입시 접촉된 돈군의 검색을 위한 방안
- ③ 감염 폐사돈 및 기구의 처리, 소독기준 마련

제 4 단계 : 재발방어단계

- ① 질병발생이 없는 주(州)의 1년간 보고 및 검색의 적극적 활동
- ② 생독백신 사용금지 및 사독백신 접종시 보고
- ③ 수입돈의 21일간 격리 보호조치로 박멸 계획은 끝나는 것이다.

이와같이 1961년부터 1977년까지 17여년동안

철저한 경영분석을 기초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유사기관 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각종 보고체제의 신속과 합리적인 방법, 부수되는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정부, 의회, 각분야 지도자,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치단결,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 등 모든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박멸대책의 성공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어 1 단계 ~ 3 단계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질병예찰에 대한 주관 및 협조기관이 있고 중앙 및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예찰조직, 예찰대상질병 등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목적도 질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발생정보 수집·분석·평가·조기검색·예방대책수립 및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어 현재의 기구, 임무 및 방법에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박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 전염병인 돈콜레라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령별로 살처분보상제도도 지난 83년 1월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시하였다. (월간양돈 83년 3월 33쪽, 살처분보상금 인상 조정: 월간양돈 86년 5월 163쪽 참조)

우선은 병이라는 것은 숨기지 말고 공개해 타 농장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

실시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제반문제도 생겼지만 연구검토한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돈콜레라가 종식될 것임엔 틀림이 없다.

청정화된 환경에서 돼지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하에 살 권리가 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